

건설사 배불리는 민간공원개발 원가 공개하라

중앙2지구, (주)호반 94세대 늘려주고 470억원 신규이익 시민단체, “고분양가 부추기고 이익 극대화에 혈안” 비난

자은 사업변경 속 탈락업체 소송뎌 특례사업 차질 우려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중앙동) 비공원시설 부지에 건립될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고, 평당 2000만 원대 분양가를 수용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광주일보 2019년 9월 2일자 2면)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세대 수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달라’, ‘3.3㎡당(평당) 분양가는 2046만원으로 한다’는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 변경안을 수용했다.

(주)한양 외에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호반건설 측의 ‘원안보다 94세대를 늘려 달라’는 변경안을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애초 사업 제안서와 달리 사업 내용이 대폭 바뀌면서 기존 민간공원 사업자 공모에

서 탈락한 업체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를 낱알이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특례사업은 광주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고 있다.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청년들이 받는 마음의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추진되는 특례사업 행태를 보면, 광주시는 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제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공원 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그러한 약점을 빌미로 건설업자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오직 이익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 전체 공개 ▲특례사업 분양 원가 및 공사비가 공개 ▲특례사업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하소연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설사에 새로운 이익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를 2046만원으로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제안서도 광주시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금융비용(이자) 상승(2.891~6.0%)으로 업체 측이 8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대 수 증가에 따라 업체가 2600억원(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

립일 경우)의 이익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이는 건설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업체가 2600억원을 모두 취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호반건설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도 뒤늦게 드러났다. (주)호반건설은 애초 112㎡(34평)형 아파트 640가구를 짓겠다고 계획을 변경해 94가구를 늘린 734가구를 짓겠다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도 178.3%에서 205.7%로 높아졌다.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반 측 매출이 약 470억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중앙공원 개발에 따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대를 유지할 경우 “광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에 건의해 남구와 서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광주시의 부동산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월드컵 평양남북대결 北 여행상품 판매

유럽과 중국 등지의 북한 전문여행사들이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4일 독일에 있는 북한전문여행사 ‘평양트래블’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남북관람권을 포함하는 2박 3일 평양관광 패키지(10월 14~16일)를 출시하고 여행객모집을 하고 있다. 가격은 470~868유로(약 62~115만원) 선이다.

상품 안내문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평양 시산호텔에 투숙한다. 주요 관광 프로그램은 15일 축구경기 관람을 비롯해 개성문·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 참관, 대동강맥주 시음 등이다.

평양트래블 측은 “축구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

긴다 해도 나머지 남북관광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미리 지불한 여행비도 환불·환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고려투어’도 같은 기간 유사한 내용의 2박 3일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서 북한과 같은 H조에 편성됐다. 북한이 홈경기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사상 최초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평양 원정에 나서게 된다.

다만 중계방송이나 남북 응원단의 남북 등 경기 제반 사항은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아직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육일기 허용...한국측 요구 무시

한국 측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 측은 내년 올림픽에서 육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육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 외교부도 육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는 “육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것발을 개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육일기와 육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 3일 조직위가 육일기의 경기장 반입 등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자 “육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판단 재고를 요구했다.

육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병기로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발이다.

/연합뉴스

홍콩 캐리 램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가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이어져 왔다.

캐리 램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법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했고, 시위대가 요구하는 송환법 공식 철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내년 국가공무원 1만8천명 증원 경찰·해경 6200명·교원 4200명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증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1만2610명이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증원한다.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850명을 증원한다.

해경 증원인원은 1363명이다. 항정 북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에 따라 762명을 늘리고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과 해양경비안전인력 153명도 증원한다. 국·공립 교원은 모두 4202명 늘린다. 특수교사(1398명), 비교과교사(1264명), 유치원교사(904명)를 위주로 뽑고 초·중·고교사는 학생인구 감소를 반영해 512명을 증원한다.

지방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증원 규모를 정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증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 2019 광주시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가 4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청년구직자들이 각 업체 및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에게 상담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감기로 대학병원 가면 의료비 폭탄

복지부, ‘의료전단계제 개선 단기대책’ 발표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계제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많은 경증환자가 비용 의식 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투자자 모심

- 전국 급매물/경매물건
-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률 - 연 20%이상
- 법적보장.010-3605-5000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펜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화 4500만원
- 영광 백수를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항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한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윤남면 하모리 11607㎡ 투지에 좋은 농림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땅)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관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영암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강정 8억4천 은행 등 5억8천 사찰도 적합 3천만
- 양양시절 최고 영광 변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인근 무안향계 2중 주거지 땅 4413㎡ 축현 2억4천 투지에 좋은 4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흥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 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